

북스

Books

프랑수아즈 사강 대표작 3권 출간



마약 혐의로 법정에서 서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프랑스 여류 소설가 프랑수아즈 사강(1935~2004)의 대표작 3권 ‘마음의 파수꾼’, ‘어떤 미소’, ‘한 달 후, 일년 후’가 동시에 출간됐다.

사강이 젊은이들에게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최근 개봉해 인기를 끌었던 일본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 때문. 영화 속 주인공의 이름 ‘조제’는 소설 ‘한 달 후, 일년 후’에서 따왔고 내레이션을에도 소설 구절이 인용됐다.

사강은 19세 때 장편소설 ‘슬픔이여 안녕’을 발표, 전세계 베스트셀러를 기록했고 이 작품으로 1954년 프랑스 문화비평상을 수상했다. 도덕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감성과 섬세한 심리묘사가 출간된 지 30년도 넘은 지금에도 여전히 신선하다. <소담·각 권 9천원>



엄마·아빠와 무수히 헤어져도 그건 이별 아닌 삶

엄마의 집 전경린 지음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조어 ‘돌싱’은 ‘돌아온 싱글’을 뜻하는 말로, 우리 사회의 여성상이 다양화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단어다. 다시 혼자가 된 여성 또는 엄마에게 집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단편소설 ‘천사는 여기 머문다’로 2007년 이상문학상을 받은 전경린(사진)씨의 신작 장편소설 ‘엄마의 집’은 2000년 들어 나타난 사회 현상의 하나인 ‘엄마들의 집’에 대한 전작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작가의 말에서 “IMF 이후 맞이한 2000년대를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겠지만, 내 입장에서 집은 가진 엄마들이 출현한 시대라고 생각한다”며 “한 여자가 집을 갖는다는 것은 경제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자신이 전적으로 통제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소설은 운동권 출신 남편과의 반목으로 집을 나간 엄마 윤진과 스무살이 된 대학 2학년생 딸 호은의 이야기다. 이야기는 소설 속 ‘나’인 호은이 이끌어간다. 외할머니 집이나 기숙사에 살았던 호은이 엄마에게 돌아간 것은 집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윤진에게 있어 집은 일반적 의미 이상이다. “아파트를 사기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일했는지 할머니가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서”이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집이었다.

“엄마에겐, 너와 이 집이 너무나 중요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낯선 곳으로 와 몇 년 동안 원룸에서 밤낮없이 일을 할 때, 난 자신에게 이렇게 독려했어. 지금은 아무것도 원하지 말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자. 해내야 할 일만 생각하자. 그것이 이 막다른 곳에서 나가는 길이야. 일하는 한, 난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다.”(264쪽)

이느 날 호은의 앞에 나타난 아버지는 “승지를 네 엄마한테 좀 맡겨라”는 말과 함께 중학생 딸을 남기고 떠난다. 윤진은 남편이 재혼한 여자의 딸 승지와

호은을 데리고 남편을 찾아나선다. 이들 일행을 맞이하는 남편의 친구들은 한 때 운동권이었으나 지금은 망가져버린, 그래서 남편의 행방에 대해 뭔가를 숨기는 ‘동조자’일 뿐이다.

저자는 주인공 호은의 시선으로 엄마 윤진, 승지, 아빠, 엄마의 애인 등 등장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엮으면서 가족과 사랑, 그리고 삶의 의미를 되묻고 있다. 가볍지 않은 주제지만 어둡지 않고 경쾌한 것은 상처의 치유법을 부정적 아닌 긍정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 없는 가족을 가진 2년차 여대생의 성장소설이라는 점에서 최근 출간된 공지영씨의 장편소설 ‘즐거운 나의 집’과 오바람이 되는 이 작품은 그래서 가족과 사랑, 삶의 개념에 대한 ‘전경린식 아포리즘’이기도 하다. 내면에 존재의 강물이 흐르고 있음을 느낀 호은의 결론이 의미심장하다. “나는 알게 되었다. 내가 엄마와 아빠와 아무리 무수히 헤어져도, 그건 삶일 뿐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

<열림원·9천800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디지털 시대에도 전제된 신화의 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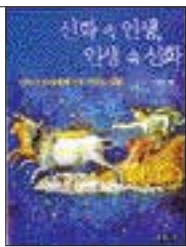
신화 속 인생, 인생 속의 신화 이영임 지음

‘도취’와 ‘광기’의 신 디오니소스로부터 두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미다스 왕은 자신의 손이 닿는 것은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말한다.

나뭇가지가 돌이면서 자신이 만지기만 하면 황금이 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미다스 왕은 기뻐 춤을 춘다.

하지만 음식이 모두 황금으로 변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다정스레 끌어 안은 사랑하는 딸이 황금상으로 변하자 그제사 정신을 차리고 자비를 구하며 또 하나의 소원을 말한다. “황금으로 변한 것들이 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후대에 사람들은 관여하는 일마다 엄청난 부를 거머쥐는 이를 영여식 표현으로 ‘미다스의 손’이라고 불렀지만 미다스 왕의 이야기는 황금만능주의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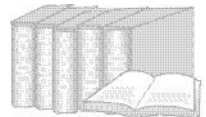
수천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치가 여전히 전세계인들에게 유효한 것은 바로 신화 속 주인공들의 삶이 단순히 ‘과거’의 재미있는 이야기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신화는 때론 인생의 복잡한 진실을 알려주고 사랑과 이별, 기다림, 배신, 복수, 욕망, 자만, 몰락, 죽음 등 인간이면 겪게 되는 다양한 삶을 담고 있다.

서울대 문화콘텐츠 연구개발센터 팀장을 맡아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신화를 문화 콘텐츠로 가공하는 일을 맡고 있는 신화 비평가 이영임씨가 쓴 ‘신화 속 인생, 인생 속의 신화’는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주인공들을 통해 인간들이 되새겨야 할 것들을 살펴본 책이다.

‘천상의 예술가’ ‘사랑의 스펙트럼’ ‘욕망의 시작과 끝’ 등 5개 장으로 나뉜 책은 협상의 달인 헤르메스, 지혜와 자유의 아이론 아테나, ‘나쁜여자’의 원형으로 불리는 메데이아, 인간적인 영웅 테세우스 등을 소개하고 있다.

에로스를 그린 카라바조의 그림을 비롯해 반다이크, 클림트, 루벤스, 고야, 보티첼리, 벨라스케스 등 유명 화가들이 그린 신화 속 주인공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열대림·1만6천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책



▲와신상상(전 6권)=춘추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중국 작가 리선상의 장편 대하소설. 고사성이 ‘와신상상’의 주인공인 월나라 왕 구천의 10년에 걸친 오나라에 대한 복수를 다뤘다. 중국 CCTV가 드라마로 만들었으며 교육채널 EBS에서 방영 중이다. <휘닉스드림·각 권 9천500원>

▲리스본의 아간열차=시인 황인숙씨가 ‘자명한 산책’ 이후 4년여 동안 쓴 57편의 시를 묶었다.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의 간결함이 돋보인다. 그러나 율림은 전작에 비교했을 때 더 깊어졌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낯선 공간과 시간들을 ‘황인숙표 언어’로 형상화해 독자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문학과지성사·6천원>



▲친절한 조선사=역사연구가 최형국씨가 조선시대 재미난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임금의 생활과 역사, 그리고 사람 이야기’에서 ‘조선시대 소와 소도둑 이야기’까지, 15년간 조선무예를 수련했다는 저자의 일견 엉뚱해보이는 조선에 대한 열정이 책에도 묻어난다. <미루나무·1만3천원>



▲사랑, 마음이 시킨 가장 고마운 일=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등 300여편의 유행가 가사와 곡을 쓴 심현보씨가 사랑에 대한 단상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따뜻한 일러스트와 잘 어울리는 글이 한 곡의 아름다운 노래처럼 느껴진다. <중앙북스·1만원>

▲초상화 살인=미술사가이자 저널리스트로 활동 중인 영국 작가 이언 피어스의 추리소설. 19세기 말 유럽을 배경으로 인성주의라는 큰 물결을 겪은 화가, 비평가, 화상(畫商) 등 예술계 여러 군상들의 갈등을 담았다. 실존했던 인물과 사건들이 등장해 사실성을 더해준다. <서해문집·8천900원>



▲날아라, 어제보다 조금 더 멀리=새 박사보다 잘 알려진 경희대 생물학과 윤무부 명예교수가 새와 함께 했던 50년의 삶을 정리했다. 지난 가을 쓰러져 뇌경색으로 투병 중이던 저자가 왼손으로 쓴 책이다. 조그만 새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줄이야. <미음의숲·9천800원>



▲여운형 평전=일본 시가현립대학 명예교수인 재일교포 강덕삼씨가 일본에서 쓴 책이 번역·출간됐다. 조선의 독립운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여운형이 중국·일본에서 펼친 독립운동을 다뤘다. 전 3권이며, 2권에서는 상해 임시정부를 다룬 예정이다. <역사비평사·2만3천원>

▲사랑 두 글자만 쓰다가 다 닳은 연필=소설가 이외우씨의 명상집. 지난 2004년 출간된 ‘이외우가 전해주는 마음의 열쇠, 뼈’의 개정판이다. 애끓는 사랑, 쓸쓸한 자연, 험난한 인생, 쌓이는 슬픔, 새로운 이별, 억제하지 못한 욕망 등 주제별로 써내려간 이외우의 아프리즘이 풍성하다. <해냄·9천500원>



▲황금당나귀=서기 170년경 고대 로마의 루키우스 아풀레이우스가 쓴 소설로 알려진 고전(古典) 중의 고전. 10가지 이야기들이 역사소설 형태로 담겨있다. 큐피트와 프시케의 사랑 이야기를 비롯해 그리스·로마 신화의 실질적 모태가 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매직하우스·1만5천원>

국내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원칙외선 불처리도 할당제! 인기 하터데로 별물이 있습니다.

원칙외선 프라미엄 할당제! 하락 조질과 튼거리 입세 난방까지

고효율의 특이 기술력! 병내 소음 저감 장치 채택

무등산업

SONY New BRAVIA

고객감사축제

행사기간 : 12월 1일(토) ~ 1월 6일(일)

WIDE SCREEN + 100% COLOR + 100% SOUND

02-522-2000